



‘스무살 아이’들 음악으로 세상에 나간다

최규철 광주예총 회장 당선 임관표 후보 7표차 눌러



최규철 현 광주예총 회장이 제 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31일 광주예총회관 방울소리공연장에서 열린 제9대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최 후보는 투표자 94명 가운데 49표를 획득, 42표를 얻는 데 그친 임관표 후보(광주예총 수석 부회장)를 물리쳤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3선 연임에 성공하며 12년간 광주예총을 이끌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의 투표권 부여 등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광주예총회관 문제를 문광부와 합의하에 마무리 짓고 8년 동안 예총 회장직을 수행해 오면서 부족하다 느꼈던 예총 내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조각가이자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인 최 회장은 광주국제비엔날레 이사, 한국예총 이사, 광주발전연구원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임 후보측이 지난 30일 광주지방방법원에 선거 불공정 등을 이유로 광주예총 선거 기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한국민예총 광주지회

윤만식 회장 연임



한국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지회는 차기 회장으로 윤만식 현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광주지회는 지난 29일 한국종합예술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현 회장인 윤만식씨를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추대했다.

윤 회장은 “민족 예술의 위상을 높이고 광주시의 문화예술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진보적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차별적 지원 시정, 아문단과 문화재단의 정책과 지원에 평등주의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탈춤반에서 문화 활동을 시작한 윤 회장은 광주민예총 초대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사)전국민족극운동 협의회 지도위원,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위원, (재)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 등을 맡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해와 달 밴드’ 7일 첫 콘서트 개최

장예·비장애인·프로 뮤지션 등으로 구성 연극인·화가 등 지역 예술인들 ‘몰심양면’ 신입 멤버·연습실 마련 기금 후원 기다려

공연 안내 리플릿에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엄마들의 편지가 실려 있었다. ‘교복을 벗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스무살 내 사랑아!’로 시작되는 편지엔 추운 겨울날 아이를 업고 처음 장애인복지관 문을 두드렸을 때의 막막함과, 아이를 치료하는 게 긴 마라톤임을 깨닫고 지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엔 네가 좋아하는 노래와 음악으로 세상의 짐 감디라가 되라는 말도 적혀 있었다.

오는 2월 7일 오후 4시 광주시청차미디아센터에서 첫번째 콘서트를 갖는 ‘해와 달 밴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5인조 그룹이다.

윌리엄스 증후군을 갖고 있는 김하람(드럼·19·전자공고 3년),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은아(키보드·20·전남여고 3년)와 김민국(퍼커션·20·선명학교 전공과 1년)군이 멤버다. 여기에 프로 뮤지션 전영규(베이스 기타), 주하주(일렉기타)씨가 함께한다.

밴드 결성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국이 엄마 류진주씨는 오래 전 ‘노래패 친구’에서 활동했다. 친구이자 멤버였던 전영규·주하주씨를 만난 류씨는 “민국이 또래 녀석들을 위해서 음악으로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주씨의 제안을 전씨 등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매주 한차례씩 아이들이 가르치고 함께 연습을 해왔다.

주하주씨의 노래에서 밴드 이름을 따온 ‘해와 달’은 하늘에 언제나 떠 있는 해와 달처럼, 오랫동안 함께 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아이들에게 음악과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음악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하람이는 “사랑하는 하람아! 집중 또 집중 하자”며 연습 때마다 다짐을 한다. 제빵 학원에도 다니는 민국



‘해와 달’ 전영규·주은아·김하람·김민국·주하주씨(왼쪽부터).

이는 가방속에 들어 있는 드럼 스틱들과 윈드 차일, 카운셀 등 각종 타악기가 길을 걸을 때마다 자기들끼리 연주하며 즐거워한다. 피아노 연주가 뛰어난 은아는 “은아의 피아노 소리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도를 한다.

풍암호수 장미축제 등 10여차례 공연을 가진 ‘해와 달 밴드’의 콘서트 제목은 ‘도란도란 피는 꽃-노래로 세상에 발 딛고 싶어요’이다.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 웃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번 공연은 많은 이들이 정성을 더했다. 홍보 메일은 민국이·아람이가 풍물 등을 배우며 오랜 인연을 맺은 타악그룹 ‘얼쑤’가 보냈다. 극단 토박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연극인 신동호·나창진씨는 전체 공연 연출을 맡았다. 화가 전현숙씨는 출연진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주었다. 김경자(영상), 이호동(영상그림&이미지), 이애실(편곡& 피아노 지도), 안상남(드럼 지도), 이하은·정은중(보컬)씨 등도 함께했다.

공연 레퍼토리는 ‘나는 나비’, ‘예감 좋은 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오디세이’ 등이며 탭댄스와 퍼커션 공연도 준비돼 있다.

류진주씨는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해준 전영규·주하주 선생님과 주변에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었다면 행사를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많은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해와 달 밴드’는 악기 구성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함께 악기를 배우고 연주할 새로운 멤버를 모집한다. 또 음반 작업과 연습실 마련을 위한 기금 후원도 기다리고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10-4606-53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재단, 전시작 손상 소송 승소

스위스 화랑, 아이 웨이웨이 ‘필드’ 7억 손해 소송

광주비엔날레재단이 해외 유명 작가의 35억원 상당의 미술 작품 손상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33부가 최근 스위스 A화랑이 재단과 국내 미술품 관리업체



B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단 등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휩싸인 것은 2011년 9월 개최된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전시작품인 중국 설치미술가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 ‘필드(field·사진)’ 때문이다. 재단은 2008년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을 당시 특별한 형식으로 선보였다.

하지만 대형파이프구조물 형태의 이 작품이 스위스에서 부산항을 거쳐 2011년 8월 디자인비엔날레 행사

장에 도착한 뒤 문제가 발생했다. 작품을 담은 총 16개 상자 중 13개 상자에서 작품 일부가 조각나거나 균열이 가 있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A화랑은 2013년 1월 “재단 등이 작품을 운송할 때 주의를 기울였다.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작품을 다시 제작하는데 필요한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작품의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재단 측의 손을 들어 줬다.

/김경민기자 kki@

임영방 광주비엔날레 창설 조직위원장 별세

백남준과 해외홍보·비즈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기여

광주비엔날레 창설 당시 조직위원장을 지낸 원로 서양미술사학자 임영방씨가 지난 3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고인은 국립현대미술관(1992~1997년)으로 재직하던 1995년 당시 우리나라 최초 대형 국제현대미술제로 시작한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전시부장으로 함께했던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은 “당시 개최지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임영방 선생이 광주의 손을 들어주셨다”며 “1회때는 외국에 네트워크 등도 없었는데 백남준 선생 등 국내 유명 작가들과 함께 세계적으로 광주비엔날레를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당시 조직위원장과 함께 ‘예술을 기획해 피카소, 달리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여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데 큰 힘을 보탤’

고인은 또 홍콩에서 교류하며 지낸 백남준과 함께 당시 비즈니스비엔



날레 운영위원장을 설득해 같은 해 비즈니스비엔날레에 한국관이 개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미술계에 알려져 있다.

1994년에는 당시로선 이례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민중미술 15년’전을 기획해 주목받았다.

고인은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철학과 미술사를 공부했으며 서울대 미학과 교수, 동국대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또 프랑스 문화예술총장(1995)과 은관문화훈장(2006)을 받았다.

문화재 위원, 한국미학회 회장, 예술평론가협회 부회장, 유네스코 한국위원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서양미술전집’, ‘현대미술의 이해’, ‘미술의 세 얼굴’ 등 다수가 있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향순, 딸 임삼미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2호실이며 발인은 3일 오전 9시다. 장지는 서울 흑석동성당 납골 시설인 평화의쉼터다. 문의 02-2072-2033.

/김경민기자 kki@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p>[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p> <p>[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p>	<p>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p> <p>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p>	<p>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p> <p>해남 영암 진도 장흥</p>	<p>스카이라이프 13</p> <p>IPTV 18</p>	<p>꿈을 담은 캔버스</p> <p>채널A</p> <p>www.ichannelA.com</p>
--	---	--	--	---	---